

<서평>

인도네시아 내셔널리즘 읽기

이지혁, 『바틱으로 보다: 자바, 인도네시아 이야기』,
서울: 세창출판사, 2018.

최 승 연*

I. 같고 다름의 맥락적 이해

칸가(khanga)는 현재 동아프리카 지역의 전통 바틱(batik)직물이다. 칸가의 여러 기원설 중 대체적으로 유럽 대항해 시대 이전 인도양의 거대한 무역 항로였던 인도 구자라트(Gujarat)에서 유래되어 인도양 상인들을 통해 동아프리카에 전해진 염직물이 토착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Piction 1995). 이후 초기의 동아프리카 바틱이 18세기 영국 동인도회사가 동아프리카로 수출한 프린트 바틱(print batik)과 혼용되고 근대 동아프리카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변화되어 현재의 칸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의 자바 바틱의 기원 역시 여러 가지 추정들이 있으며 대체적으로 인도네시아 토착설과 인도, 중국, 혹은 다른 외부 지역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Kerlogue 2004). 인도네시아 바틱은 식민지 지배 이후 서구, 이슬람, 일본, 중국과 힌두교, 불교의 영향을 기초로 특히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걸쳐 자바의 사회적

* 목포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chltmddus200@naver.com.

맥락에서 새로운 형식의 바틱으로 탄생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일본에서의 바틱은 에도시대 남만(南蠻)무역이 유행하는 시기 포르투갈인들을 통해 받아들인 염직물로, 일본인들은 이것을 사라사(更紗)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일본사회에 정착시키게 된다. 20세기 들어(1910년대부터) 메이지 유신(Meiji Restoration)과 함께 근대적 섬유 산업을 발전시킨 일본은 사라사를 자신들의 문화에서 여전히 사용하면서도 유럽과 유사한 프린트 바틱을 생산한다. 일본에서 생산된 프린트 바틱은 인도네시아 자바와 아프리카에 수출(吉本忍 1996)되어 이들 지역 바틱 문화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이 대항해 시대 이전부터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에 풍부한 토착 바틱 문화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19세기에 서 20세기에 걸쳐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식민세력들에 의해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토착적인 바틱이 근대적인 기술로 대량 생산하는 프린트 바틱(print batik)으로 탄생한다. 이들 유럽과 일본에서 생산된 프린트 바틱은 인도,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미얀마, 베트남, 호주 원주민 지역, 아프리카 각 지역으로 재수출되었다. 20세기 이후 이들 각 지역들의 프린트 바틱들은 각 지역의 사회 안에서 정착되어 문화적 의미를 지닌 각 지역 바틱으로 재탄생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가지게 되었다.

결국 바틱은 유럽의 대항해 시대 이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이름과 의미로 자리 잡아 왔고 바틱이 인도네시아 이외에 다른 유럽, 일본, 아프리카 사회에 확산되어 생산·소비되는 과정들은 서로 다른 역사와 사회적 맥락들이 작동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바틱을 다양한 시·공간으로 확장하여 이것이 같고 다르게 작동하는 사회적 맥락을 비교하다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문화의 얼굴을 만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바틱은 인도네시아 자바만이 그 기원

지이며 중심적인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즉 바틱이 사용되고 있는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자바 바틱 역시 인도네시아의 역사적·사회적 맥락 안에서 만들어진 사회문화적 구성물인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에게 유도한다.

이지혁의 『바틱으로 보다: 자바, 인도네시아 이야기』는 바틱이 인도네시아 근대국가 성립 과정에 어떤 상징성과 전통으로 재구성되고 있는가를 살피고 있는 책이다. 인도네시아 근대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내셔널리즘(nationalism)과 관련된 바틱의 사회구성적 성격을 알 수 있게 하는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평자가 이 책을 펼쳐 읽어 내려가면서 먼저 눈에 들어왔던 내용은 저자가 1장에 이 글을 쓰게 된 목적을 밝히는 부분이었다. “인도네시아인들의 바틱 사랑에 대해 설명하는 것”(12쪽), “자바를 대표하는 자바의 영혼(sukma Java)을 넘어서 인도네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정신으로 확대되고 있다”(14쪽)는 내용이었다. 실질적으로 저자는 이 책에서 인도네시아 바틱의 “사랑”, “영혼”, “정신”과 같은 감성적인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즉, 저자는 국민국가 형성의 맥락에서 인도네시아인들이 바틱에 대해 이와 같은 감성을 갖게 된 사회문화적 맥락, 특히 국가에 의해 주도된 내셔널리즘의 역사적 과정들 안에서 그 원인을 찾아내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저자 역시 인도네시아 바틱 사랑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평자는 거기에서 살짝 한 발 물러 나오려고 한다. 또한 이 책의 8장 맺는말에서 저자는 “인도네시아의 바틱은 한복보다는 한국의 김치에 더 가깝다고 생각한다. 우선, 인도네시아인들의 바틱에 대한 자부심은 한국인들의 한복보다 김치에 대한 자부심에 가깝다. 먹는 것이 결국 그 사람(You are what you eat)이라는 표현처럼 한국 사람과 김치가 등치되듯, 바틱과 인도네시아인이 등치될 수 있다. 또한 한복이 다소 현재와 동떨

어진 느낌이 있는 문화라면 김치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현재의 문화다. 마지막으로 상업적 성공의 측면에서 바틱 산업은 김치 산업과 비교될 수 있다”(251쪽)라고 쓰고 있다. 평자는 바틱이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한국의 김치만큼 일상적인 층위에서 많이,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 내용의 의미를 이해하면서도 “인도네시아 바틱은 먹는 것이 아닌, 한국의 한복, 혹은 다른 지역들의 바틱이나 의복과 비교되어야 하고 한복은 과거의 산물만이 아닌 현재에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현재의 문화이다. 또한 여전히 전통성과 현대성, 근대성과 식민성, 그리고 상업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다른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 글을 시작하고 싶다.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다음 장부터 이어질 이 글에 대한 서평의 중심적인 내용들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인간 삶의 기본요소인 의·식·주는 각기 물질과 이것을 결합시키는 고유한 기술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동시에 다양한 시·공간적 차원에서 이것의 생산과 사용이라는 인간의 구체적인 문화적 실천의 양상들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얽혀있는 역사성을 지닌 문화 체계라는 점이다. 그간의 사회과학적 그리고 동남아시아 관련 연구들에서 의식주를 다루는 연구가 다른 주제에 비해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에서 수행된 이 주제들의 사회과학적인 연구들의 경우에도 인간의 문화적 실천의 양상을 거시적인 구조, 제도와 담론의 층위에서 논하는 것들이 대부분으로, 기술 체계와 인간의 상호작용 안에서 만들어지는 문화적 의미는 많이 간과되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복의 영역은 고유한 문화적 의미와 기술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먹는 것과 거주하는 것의 영역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측면이 있으며 그에 따른 연구의 관점과 방법을 지닌다고 생각한다.

이지혁의 『바틱으로 보다: 자바, 인도네시아 이야기』는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인도네시아 바틱에 주목하는 이유와

이 글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2장에서는 인도네시아 바틱의 역사와 만드는 방법, 3장에서는 바틱의 문양의 특징과 자바인들과 바틱과의 일반적인 관계를 서술하고 있다. 4, 5, 6장은 저자가 1장에서 밝히고 있는 이 글의 주된 목적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서술되고 있다. 즉 바틱의 지역적, 국가적 특징과 네덜란드 독립 후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바틱 인도네시아가 등장하는 과정, 정치지도자가 바틱을 활용한 방식, 이를 통해 바틱이 국민 형성에 기여한 것, 사회구조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말레이시아는 타자로서 이 과정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16-17쪽). 7장에서는 바틱의 상업화의 문제를 다루고 8장에서 이 글을 마무리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저자의 책 전체 내용 중 평자에게 중요하게 다가왔던 2가지 측면에 대해 서술해 보고자 한다. 먼저 동남아시아 내셔널리즘의 문화적 형성 과정에 관한 사례 연구의 하나로서, 인도네시아 자바 바틱 읽기의 의미, 다음으로 다양한 주체의 인식과 실천의 문제 안에서 바틱의 생산체계와 기술적 측면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이다.

II. 의복으로 내셔널리즘 읽기

인간 문화의 실천 공간으로서 의복의 생산과 사용의 영역을 고려하게 되면 의복은 인간의 몸을 매개로 하는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준다. 다시 말하면 의복은 문화 이해를 위한 독해의 중요한 대상이 된다. 전통 사회에서 의복은 성, 세대, 계층 등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직물의 종류, 색상, 형태, 장식 등은 이를 잘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일상과 의례와 같은 비일상적인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에 따른 문화적 상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근대 이후 사회에서 의복은 더욱 복잡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식민주의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식민지배 이념을 상징화하고 규율하는 중요한 기제로서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사회적 관계 등을 파악하게 한다. 특히 근대 국가 성립과 관련된 측면에서는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조직의 이념이나 통제 기제, 사회적 이념과 새롭게 등장한 근대적 주체들의 몸에 대한 인식과 실천이 의복의 여러 가지 측면으로 파악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의 함의를 지닌다.

근대성은 유럽 사회에 대한 베버의 논의들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국민국가(nation state)와 자본주의 체제의 등장, 시민 사회와 사회적 공적 영역(public space)의 등장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전통이나 민족주의와 같은 강력한 국가 통합 이념의 등장(Weber 2012)과 같은 특징들로 개념화된다. 근대성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들은 모든 사회가 동일하게 서구화로 진행되는 역사적 과정으로서 이것을 규정하고 유럽 이외의 다른 아시아 지역 역시 동일한 문제틀로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들을 제기해왔다. 따라서 서구 중심적 시각에서 비서구 지역 근대성의 문제를 사변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다양한 사회가 경험한 근대성의 국가적, 지역적인 사례들을 조사하고 이 경험을 다양하게 만드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역동 안에서 비서구 사회가 경험한 근대성의 의미를 찾아내는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근대화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의 하나인 국민국가 형성의 문화적 맥락도 이와 같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이 해당 사회가 가진 전통, 민족주의적 요소, 식민지 지배 경험의 차이나 유무 등이 만들어내는 역동이 사회문화적인 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된다는 점이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각 지역별로 자연환경, 인종, 종교의 다양성이 존재하며 이것은 동남아시아 각 지역이 경험한 근대성에 관한 이해를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측면에서 고려

해야하는 것으로 만든다. 예를 들어 태국사회의 근대화는 전통적인 불교, 왕권이 서구화 안에서 해석되는 과정(조흥국 2015), 말레이시아에서는 전통적인 이슬람과 아닷(adat), 그리고 다른 토착적인 요소와 서구가 만나는 역동의 과정일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 의복이 국민 국가 형성 시기 국가의 통합 기제로서 상징화되고 있는 사례들에서 파악되는 공통점은 바로 국민국가 형성 시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전통적인 요소들이 근대적인 필요에 의해 재 발명 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한복, 중국의 치파오, 일본의 기모노의 사례(김효진 2011)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듯이, 국민 국가 형성 시기 전통과 민족주의가 서구화와 결합되는 양상과 방식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매우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일본은 서구의 요구를 빠르게 수용하는 메이지유신을 시행하면서 이것을 식민주의 팽창의 기회로 삼아 적극적인 서구화를 수용하게 된다. 일본의 전통 기모노는 일본 특유의 환경적 조건에 적합한 보온성을 갖춘 의복으로 계층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기모노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에도시대에 포르투갈을 포함한 서구 복식의 영향을 수용하여 현재 전통적인 기모노라고 하는 형태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메이지유신 시기 적극적인 서구 문화의 유입 전략을 선택한 일본 정부의 전략은 전통 기모노의 형태에 반영되어 기모노와 양복의 혼용 현상과 함께 전통적인 기모노와는 다른 근대적 기모노가 탄생하게 된다. 이와 대비되어 한국, 중국은 일본과 달리 서구 열강에 의해 강제적인 근대화를 수용하면서 역시 서구화와 등치되는 양상의 수용이 이루어지지만 내부적인 전통과 민족주의 요소가 강하게 작동을 하였다는 점이다.

이런 의미에서 저자의 이 책은 인도네시아의 국민국가 형성 과정에서 전통적 요소인 바틱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제시해 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자는 이 책의 4, 5, 6장에서 1950년대 인도네시

아에서 자바의 지역을 넘어서는 국민 바틱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141-162쪽)에서부터 수카르노 대통령이 자바의 바틱을 인도네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집단적 기억으로 표상화하고 이를 통해 특정 지역이 아닌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바틱을 통해 2000년대 들어 말레이시아와 바틱 소유권 갈등과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바틱 내셔널리즘의 등장과 함께 원래는 누산타라 문화권에 뿌리를 두었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독립 후 국민국가가 출범하면서 형성된 갈등 문제를 설명하고 있다(163-220쪽). 결국, 저자는 인도네시아 내셔널리즘의 특징을 국가 수준의 거시적인 차원에서 자바 종족주의에 기반한 민족주의적 성격이라는 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특히 그간의 인도네시아 연구에서 부재했던 전통 바틱과의 상호 관련성 안에서 인도네시아 국민국가 형성 과정의 특수성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Ⅲ. 다양한 주체들의 인식과 실천

근대성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어김없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다양한 주체들, 이들의 인식과 실천의 문제들이다. 그 동안의 근대성 형성과 주체들에 관한 인식은 주로 거시적인 국가 차원의 담론 형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가적인 지배 권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존재가 아닌 더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존재로서 다양한 하위 주체들의 미시적이고 일상적인 인식과 실천(Fox 1992)의 중요성들이 제기되어왔다. 의복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게 되면 국가 주체의 성격과 유형은 근대 국가 성립 이후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생산지는 다양한 층위의 배경을 가진 수공업자와 공장 생산자,

전문 디자이너 집단, 유통업자, 소비자들로 세분화될 수 있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다양한 인종,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문화가 개입된다는 점에서 주체들의 실천의 맥락은 매우 다층적이고 역동적인 측면으로 구성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의복의 영역에서 이 주체의 실천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바로 이 생산 영역을 이루고 있는 기술 체계의 중요성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독립 후 국가적 내셔널리즘 형성 과정을 수카르노 대통령과 영부인, 수하르토 대통령 등 국가 수준의 인물들이 자바인이라는 개인적, 정치적인 이유에서 시작하고 있다. 이 책의 중심분석은 4, 5, 6장을 중심으로 바틱 착용의 제도화와 공교육 정책들을 통해 국가 담론과 제도화 수준에서의 국민통합 과정이 서술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저자가 파악하고 있는 전통 형성의 중심 주체들은 1955년 수카르노 대통령이 바틱 제조업자로 유명한 디자이너를 통해 중부 자바의 전통 문양에 자바 북부 해안지방의 화려한 색을 조합하여 사웅갈링(sawunggaling)이라는 문양과 바틱 인도네시아를 창조한 과정으로 제시한다. 이로 인해 본격적인 바틱 인도네시아의 영향과 침체에 빠졌던 인도네시아 바틱 산업의 부흥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141-162쪽). 또한 자바인이 아닌 다른 종족 출신의 다양한 종족들로 구성된 일반인들(17명, 20-30대들)과 자카르타의 유통업을 하는 1명의 화인 응답자를 통해 바틱이 인도네시아 전체를 대표하는 것과 바틱 착용에 관한 문제, 그리고 바틱이 개입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관계에 관한 인도네시아인들의 인식(200-202쪽)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저자는 인도네시아는 상당한 문화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가 서로 이질적이고 한 번도 하나의 정치공동체 속에 통합된 적이 없던 누산타라(Nusantara)세계를 350년 동안 동일한 지배체제 속에 놓이게 함으로써 인도네시아에 미약하지만 통일성의 씨앗을 심었다면, 3년 반 동안의 일본 식민 지배는 연방

이 아닌 단일국가를 구상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주었다고(160쪽) 서술하고 있을 정도로 인도네시아는 단순히 자바 문화로 쉽게 통일될 수 없는 많은 문화적 차이들이 존재하고 있는 사회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바틱과 관련해서 개인, 지역, 국가라는 분석 수준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146쪽). 책의 핵심은 대통령의 주도하에 디자이너에 의해 시작된 국가 차원의 바틱 내셔널리즘 형성 시도가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차이를 가진 인도네시아 내부의 다양성을 자바 내셔널리즘으로 단합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국 저자는 바틱 인도네시아 내셔널리즘의 문제는 내부의 다양한 인종적 다양성을 자바화시키는 것의 문제가 아닌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문제라는 점으로 귀결시키고 있다.

평자는 이 부분들에서 약간의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싶다. 첫째, 소비자의 문제를 제외하고 생산자 수준에서만 고려하더라도 국가차원의 전통 재창조 작업이 국가가 의도하는 방식대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인도네시아 내부의 바틱 생산자들은 다층적으로 구성되어있고 이들은 국가적 전통을 상징화하는 작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들이 전통을 재해석하는 방식은 모든 생산자 집단들이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 이들 다양한 층위의 생산자 집단들의 전통의 재해석 방식은 이것을 생산하는 기술적 측면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화적인 분석 대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교토 니시진오리(西陣織)에 관한 연구(문옥표 2016)는 전통 직물 생산자와 유통업자들이 현대 산업화시대에도 여전히 니시진만의 고유한 전통적인 가내공업에 기반을 둔 수공업적 생산과 유통체계, 전통 기술을 고수하는 방식에 주목한다. 일본 문화 안에서 전통 직물 생산자집단들의 기술체계를 통해 이들이 인식하고 실천하는 전통의 의미를 분석한 이 사례는 이 지점과 연결되는 매우 중요

한 분석 사례가 될 수 있다. 한국의 사례에서도 전쟁 후 한국에 소위 디자이너라고 하는 새로운 전문 직업군이 등장하고 이들은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이후까지 한복을 통한 국가 차원의 전통의 재창조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들 패션 디자이너들은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 아래 국가 이미지 형성과 함께 디자이너 자신의 정체성을 세계무대에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한복의 고급화, 세계화, 현대화 방식으로 한복의 소재, 문양, 디자인 등을 통해 다양한 전통의 재해석 실천들을 해왔다(채금석 2012). 한복 디자이너 집단들 이외에도 다른 층위의 소규모 생산자 집단들은 한국의 독특한 의류 산업적 구조 안에서 국가보다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상업성을 기준으로 전통의 재해석 작업을 해왔다(심준영 2017). 따라서 한국의 사례에서도 근대국가 형성 시기 민족주의와 전통 담론 안에서 한복 생산업자들의 전통의 인식과 실천 양상은 매우 다층적인 양상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비교하면 일본과 한국에 비해 더욱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지역적 층위를 가진 인도네시아 바틱 생산자 집단들의 구조적 특징과 전통의 재해석 양상은 더욱 역동적일 것이다.

이 저서가 지닌 중요한 의미에도 불구하고 평자는 이 지점에서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한다. 즉 내부 주체들(생산자 혹은 소비자 집단)의 전통 해석의 다층성과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와 상호연관되는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 책의 2장, 3장의 바틱의 기술과 문양의 일반적인 특징들이 4. 5. 6장의 내용으로 삽입되어 중심으로 분석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생산의 영역과 관련된 바틱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수라카르타(Surakarta)와 족자카르타(Yogyakarta)를 중심으로 하는 중부 자바지역의 바틱이 가진 수공업적 형태의 바틱 생산 기술, 즉 장인의 철저한 수작업에

의해 완성되는 바틱 툴리스(Tulis) 기법에 의한 양면 염색 기법, 문양, 염색 방식 등이 전통성에서 중요한 기술적 요소로 고려된다는 점이다. 문제는 19세기 바틱 찹(chap)과 20세기 화학 염료의 등장으로 전통 바틱에 큰 변화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자바의 프린트 바틱과 유럽과 일본에서 들어오는 프린트 바틱 사이의 갈등으로 표면화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1950년대 이후로 자바 전통 바틱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로 프린트 바틱의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바틱의 전통 기술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친다(笠井靖夫 1960). 결과적으로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이후까지 유럽과 일본산 프린트 바틱은 위축되고 자바에서 새로운 프린트 산업이 대두하고 자바의 바틱 생산자들은 전통 자바 바틱과 서구의 직접 날염 기법을 사용한 프린트 바틱 기술을 혼용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섬유 소재, 염색 방법, 문양의 종류와 문양 표현 기술 등 전통 자바 바틱의 기술적 측면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인도네시아 북부와 중부 지역의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생산자 집단들이 인식하고 실천하는 자바 바틱의 전통성은 이와 같은 기술적 요소를 해석하는 과정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평자가 느끼는 아쉬움으로 인해 이 책의 의미가 사라져서는 안 될 것이다. 저자의 이 책은 바틱을 통해 인도네시아 근대국가 성립 과정과 내셔널리즘의 상호 관련성을 읽어 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그 동안 한국의 동남아시아 문화 연구에 직물이나 의복을 통한 연구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저자의 연구가 갖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연구는 인도네시아와 다른 지역 바틱과의 비교 연구 또는 의복으로 표현되는 동남아시아 다른 지역의 내셔널리즘 연구에 많은 함의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효진. 2011. “ ‘엔틱 기모노 붐’을 통해 본 기모노의 근대화와 재
생.” 『비교문화연구』 17(2) : 5-44.
- 문옥표. 2016. 『교토 니시진오리(西陣織)의 문화사: 일본 전통 공예
직물업의 세계』. 서울: 일조각.
- 심준영. 2017. “대여 한복에 대한 연구 - 2006년과 2016년 시장과 소비
자 변화를 중심으로 -.” 『服飾文化研究』 25(3) : 405-418.
- 조흥국. 2015. 『근대 태국의 형성』. 고양: 소나무.
- 채금석. 2012. 『(세계화를 위한) 전통 한복과 한 스타일』. 파주: 지구문
화사.
- 吉本忍. 1996. 『ジャワ更紗』. 東京: 平凡社.
- 笠井靖夫. 1960. 『バティック』. 大阪: 日本纖維意匠センター.
- Fox, R. G.. 1992. “East of Said.” M, Spirinker(ed). *Edward Said: A
Critical Reader*. Oxford, UK; Cambridge, USA: Blackwell.
- Kerlogue, Fiona. 2004. *The Book of Batik*. Singapore: Archipelago
Press.
- Piction, John. 1995. *The Art of African Textiles: Technology, Traditional
and Lurex*. London: Barbican Art Gallery.
- Weber, Max. 2012.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anslated by Talcott Parsons. New York: Dover Publications.

